

# 이혼자들의 이혼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

남 영 주(서울대학교 강사) · 옥 선 화(서울대학교 교수) · 강 은 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라는 행동의 변화와 이혼 태도라는 인식적인 변화가 그 속도를 같이 하고 있는지, 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경우와 자신이 직접 이혼을 경험한 경우에 과연 이혼에 대한 태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해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보고, 나아가 이것이 사회여론조사나 양적인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혼에 대한 태도와 어떤 차이나 유사점을 보이는지 논의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자(남성 2명, 여성 13명)를 연구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신의 이혼 경험을 통하여 주관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별심층면접은 평균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혼한 사실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움츠러들거나 숨기고 싶어 한다. 자신에게 아주 의미 있는 타자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자신의 이혼 경험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한다. 이는 갤럽(2000)에서 행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숨길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혼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때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철저히 느낀다. 결국, 이혼을 바라보는 내부자의 관점과 외부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혼자체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 이외에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서 오히려 이혼에 대해 더욱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이혼 인식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 중의 하나가 이혼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가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당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 속에 투사되고 있는 이혼에 대한 태도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 일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이혼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사회의 이혼 현상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더 나아가 한국 가족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